

“체급을 올려라”...민주당 텃밭 광주, 후보 합종연횡 본격화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맞서 후보 단일화

출마 포기·컷오프 후보들 합쳐 세 불리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지역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 간 이합집산이 나타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국회의원에 맞서는 경쟁 후보들이 단일화와 연대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며 1대 1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광주시의회에서 청년정책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에 나섰다.

광산구를 지역구는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편법 탈당 논란을 빚은 후 지난해 4월 특별복당한 선거구다. 민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에다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된다.

민 의원에 도전하는 김 전 대변인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공동 정책공약으로 연대에 나서는 한편 향후 단일화까지 이뤄낼 경우 선거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지낸 조오섭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북구갑 선거구도 경쟁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체급을 올릴 예정이다.

문상필 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장과 정준호 변호사가 최근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뒤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조오섭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수 행사장에서 시·구 의원들을 병풍처럼 옆에 세워두고 발언하는 갑질 행태를 보였다”며 “지방 의원을 둘러싸고 세우는 구태 경선을 그만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구갑 선거구는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강위원 이재명 대표 정부특보가 출마를 점으면

서, 강 특보의 지지가 어느 후보로 향하느냐가 관심이다.

서구갑은 지난해 12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MBC가 의뢰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강 특보는 현역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24%)에 이어 13%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코리아리서치, 조사기간 12월26-28일,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어 박해자 전 의원이 12%, 조인철 전 광주 시 문화경제부시장 10%,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8%, 윤종록 국민의힘 서구갑 당협위원장 3%, 강승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 박현민 정의당 서구갑 지역위원

장 2% 순이다.

강 특보 선거조직이 특정 후보로 쏠릴 경우 지지율 선두인 송 의원과 팽팽한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오는 2월5일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특정 후보와 합종연횡을 하거나, 일부는 제3지대 정당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 제약이 많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기득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느 선거에서나 후보 간 이합집산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행택기자

전남 악성 미분양주택 1212가구, 전국 '최다'

전남지역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내놓은 '2023년도 12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8577가구로 전월보다 3.7%(392가구) 증가했다. 3개월째 1만가구를 넘는 물량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21677가구로 3.7% 늘었고, 지방은 8690가구로 역시 3.7% 증가했다

반 정도 차지했다.

작년말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광주 596가구, 전남 3618가구나 됐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5만7925가구)보다 7.9%(4564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말하는데 입주자가 시작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부, 작년 12월말 기준 주택통계...전국 1만8577가구 미분양 주택, 전남 이어 경남-제주-대구-부산-충남 순

전남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13399가구에서 12122가구로 1277가구(9.5%)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광주는 전월보다 171가구 줄어든 2217가구였다.

전남에 이어 경남(1116가구), 제주(1059가구), 대구(1044가구), 부산(882가구), 충남(836가구) 등의 순으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전체 21677가구 중 경기도가 10899가구로 절

주택인 만큼 시공사나 시행사가 떠안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건설사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인해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희면기자



“즐거운 설 보내세요” 30일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한상차림 선물바구니’ 나눔행사에서 직원들과 김민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역 돌봄이웃에게 전달할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상생카드 설 맞아 2월 한달 10% 특별 할인

광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지역상생카드 10% 할인 특별행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높기 위해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할인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1인당 체크·신용카드 통합 50만원을 10% 할인된 금액에 충전 또는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상생카드 할인율 7%에서 3%p 추가 할인된다.

광주상생카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며, 광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구매와 충전을 할 수 있다.

매월 자동 충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할인 기간에 자동으로 특별할인율(10%)이 적용돼 충전된다.

이슬비기자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